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이 급선무

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 양계인들은 시대에 걸맞은 양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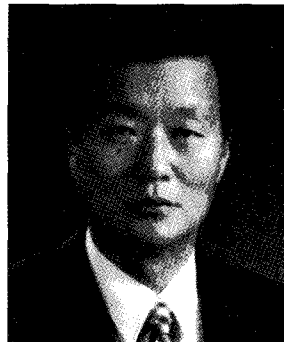
세계는 국가간에 있어 일률적으로 G.NP 수준으로 비교하여 수입과 수출 가능성을 절대평가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후진국에서도 품목별로 국제 경쟁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입과 수출이 결정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공산물이건 농축산물이건 간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시도하거나 수입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재개가 조만간에 이루어진다면 닭고기는 물론 계란에 이르기까지 저가에 국내로 무차별적인 반입이 이루어질 소지가 높으며 태국산 계란은 이미 국내 계란생산비 중 사료비에 가깝게 생산이 되어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양계산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00년을 맞이한 우리 양계인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보다 매진해 나가야 할 입장임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선 열악한 계사환경을 개선시켜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과 같이 기온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여 생산성 저하와 함께 온갖 닭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져 안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아직도 한겨울에 눈만 조금



장 대 석

본회고문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내리면 무너지는 계사가 있고 환기가 안되어 호흡기에 걸리는 예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산성 저하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식의 사육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유지해오고 있는 양계산업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계인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만큼 의식도 이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영농의 실현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도전속에 소득증대도 이루어지고 경쟁력도 배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해요인이 배출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공격적인 개선책 요구와 함께 심지어는 산업활동을 제한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계분처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 양계산업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 육계산업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육업계가 보다 활성화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산업활동의 무대가 한국계육협회를 중심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서서 향후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육계에 선두가 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양계인은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양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 주시길 기원합니다.